하루를 시작하며

좌 정 묵 시인·문학평론가

기록은 역사와 닿아있다. 기록이 바로 역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, 역사의 대부 분은 이런 기록에 의존해 기술할 수밖 에 없다. 역사란 어떤 관점에서의 기술 도 의미가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현실의 삶과 문제들을 이해하고 미래 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. '조선왕조실록'이 국보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 기 때문이다.

기록 자치 시대란 기치를 내걸고 최 근 '(가칭)제주기록원'설립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고, 이

# 역사가 되는 기록(記錄)을 생각하며

미 2021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'공고 제2021-635호'로 '(가칭)제주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'입찰 공고 가 있었다.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이 확대되고 고양되리란 면에서 고무 적인 일이다. 특히 제주도는 아직도 기 록으로 남기지 못한 중요한 일들이 얼 마나 많은가.

그러나 기록으로 남겨지는 글과 기 록물들이 모두 역사의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. 몇 해 전, 고교 선배께서 황 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전해준 말이다. 고향 읍면 단위 행사가 있었는데 안내 책자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도의회 의 장의 축사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서 고 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하다 잊어버렸 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일로 만나 그 때의 마음을 전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걸 쓴 기억이 없다는 거였다.

오늘날 우리는 쏟아지는 기록물들과 대면하며 살아가야 한다. 인터넷을 통 한 정보도 마찬가지다. 기록과 정보를 진단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는 일만으로 도 현대인들은 피로를 더할지도 모른 다. 다른 기록물들과 달리 공공 기록물 은 조선조의 '왕조실록'처럼은 아닐지 라도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공익의 기 록이어야 한다. 제주도의 '제주', 도의 회의 '드림제주21'의 경우가 그렇다.

위 두 발간물에 참여하는 편집 담당 은 '제주'의 경우 공보관을 포함한 9 명, '드림제주21'은 공보관을 포함해 3 명이다. '제주'의 편집위원 8명은 외부 인사인데 비해 '드림제주21'은 모두 담 당 공무원이다. 두 기록물의 편집 방 향, 내용 등을 비교하는 일은 외부적 간섭일 수가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지 만 심한 차이가 있다. '제주'는 어느 사 기업의 홍보책자 같다면, '드림제주21' 은 그나마 체계적이다.

'제주'(2021년 봄호)에서 '청정과 공존으로 여는 더 큰 제주'라는 기치

로 제주형 뉴딜과 저탄소 정책을 강조 하면서,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오 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대는 걸 홍보하는 일이란 아무래도 모순이다. 일관성이 없다. 적어도 '드림제주21' (2021년 가을호)에서 '지방자치 부활 30년, 걸어온 길 가야할 길'의 내용처 럼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면 서 새롭게 나아가겠다는 다짐은 얼마 나 진솔한가.

최근,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와 관련한 '자서전' 형식의 책을 발간하는 일을 맡아달라 는 제의가 있었다. 이러한 의도의 기록 물이 가지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기도 하지만, 대필은 역사 왜곡이란 생각과 함께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했어도 참 혹함을 느끼면서 엄숙하게 거절하고 말았다. 제주기록원이 설립되면 할 일 이 참 많겠다.

## 뉴스-in

### "복지 사각지대 종합적 분석 필요"

○…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이 12일 민원서비스 제공과 코로나 19 방역에 만전을 당부.

구 권한대행은 이날 주간정책 조 정회의에서 "아직까지 국민지원금 을 신청하지 못한 세대수가 1만 7355명에 이른다"며 "이분들께서 어떤 사유로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복지사각지대는 아닌지 종합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"고 강조.

이어 지난 주말 도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 철 저를 당부하는 한편, 올바른 행정 용어 사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 져달라고 주문. 고대로기자

#### 어린이 식습관 개선 기대

○…여름방학 기간 중단됐던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 이 재개돼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위축된 과일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.

제주시는 과일간식을 재개하면

구 대행, 민원 제공 만전 당부 서 공급 주기를 주1회에서 주2회 로 확대하고,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확 후 최종 소비자 배송까지 저 온으로 유지하는 콜드체인으로 신 선도와 품질을 유지할 방침.

시 관계자는 "과일을 제공해 어 린이 식습관 개선 및 과일소비 촉 진을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"이라고 강조. 이윤형기자

#### "교육복지사 배치 저조"

○…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 수 요와 필요가 늘어나고, 전문상담교사 와 담임교사 등과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의 배치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 제기.

12일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'전국 시도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'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육복지사 수는 20명(전국 1651명)으로 관내 전체 학교 수 대비 배치비율은 8%(전국 13%)로 조사.

강 의원은 또 제주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 직업계고의 교육복지사 미배치 문제도 지적. 오은지기자

# 사설

## 질책하는 '통과의례'로 끝나선 안된다

제주도의회가 대의기관다운 면모 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왔다. 오늘 (13일)부터 도의회가 민선7기 원 희룡 도정과 민선4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.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여서 의원들 은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.

제주도의회는 13일부터 26일까 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, 양 행정시, 산하기관,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를 벌인다. 이번 감사에서는 '위드 코로나'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와 소상공인 ·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 로 보인다.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.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과 저조한 버스 수송분담률 등 어느 것 하나 순탄 한게 없어서다. 이와함께 잇단 유 찰로 표류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 선 안될 것이다.

시설 현대화사업과 4·3 배보상 문 제 등 시급한 현안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.

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 는 절호의 기회다. 물론 도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회의감이 없 는 것은 아니다. 단적으로 버스준 공영제의 경우 시행 전에 제동을 걸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.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잖은 가.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에 대 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다. 그 결과 도민 혈세 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. 오죽하면 버스회 사 노조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폐 기하라고 촉구하겠는가. 그렇다면 예산심의권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 로 막지 못한 도의회의 책임도 면 할 수 없다고 본다.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소리나 높 이며 질타하는 '통과의례'로 끝나

#### 제주는 부동산 투기 '무법지대' 인가

부동산시장의 장기 과열 양상에 고강도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.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말 이후 현재까지 전국 상위 수준의 장기 오름세를 기록중이 고,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행 위도 '위험수위'다. 부동산시장이 각종 불법·편법을 동원한 투기행 위로 치달으면서 서민층의 '한 숨'도 깊어지는 현실이다.

작년 11월부터 올 현재까지 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 46주 연속 상승 소식은 시장 과열의 대표적 징후다. 제주가 지난 2014~2016 년 인구 유입과 주택경기 활황으 로 1년 8개월 연속 오른 이후 처 음이다.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세 는 언제쯤 진정될지도 장담못할 만큼 '위력적'이다. 그간 누계상 승률이 올해만 16.9%를 기록, 전 국 10.9%를 웃도는가 하면 인천 (18.8%) 경기(17.6%) 다음으로 높다. 매매가 상승은 그대로 전 세가격에 반영돼 올들어 10월 첫 주까지 누계 13.9% 상승률로 전

탁월한

6

국(7.4%)의 두 배다. 제주가 정 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서 제외되 면서 외지인 투기세력의 '먹잇감' 으로 일찍 급부상한 셈이다.

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를 위반,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도 끊이질 않고 있다. 국회 문진 석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를 속이는 업계약, 다운계약, 미신고 등 행 위의 경우 제주서 작년 113건에 이어 올 3월까지 58건 적발돼 작 년 절반수준을 넘었다. 도내 부 동산시장이 외지인 투기세력에 의한 과열에다 불법·편법을 동원 한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얼룩 진다는 얘기다.

지역사회가 부동산 투기로 불 로소득을 올리는 이들의 득세를 방치해선 안된다. 부동산 가격 폭 등이 집없는 서민들의 탄식, 월급 쟁이들의 좌절로 이어지는 현실 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. 행정 세무 사법당국이 동원 가능 한 모든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.

#### 열린마당

## 전주이씨계성군파 제주입도조 시향제



이 철 헌 전주이씨계성군파 제주도종친회장

전주이씨 계성군파 제주도종친회(회 장 철헌)는 10월 상달의 넉넉함과 풍 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주 입 도조이신 팽형조 및 득춘조 시향제를 지난 9일 오전 11시 제주계성회관에 서 임원 이사와 종친가족 등 14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간소하게 정성을 다해 뜻깊게 봉행했다.

이번 시향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계성군(성종대왕 제2왕자) 의 4대손이자 제주입도조 이신 '팽형 조' 및 입도조 2세 '득춘조'의 숨결을 들으며 계성군의 17대 손인 철원 재 무부회장이 초헌관, 18대손 경성 총무 부회장이 아헌관, 16대손 승윤 이사 (6파)가 종헌관으로, 16대손 상봉 전 례부회장이 대축관으로 집전했다.

2부 행사로 종사발전에 공로가 많은 계성군 17대손인 철원 재무부회장 (10파 회장)을 비롯한 17대손 석호 7 파 회장과 18대손 일성 이사 (11파)가 대동종약원이사장 표창을 받았으며, 8 파 종친회 응성 부회장(18대손)과 여 성회 영숙 총무이사・소라 재무이사, 청 년회 승헌 총무이사 등 대동종약원제 주도지원장 표창을 받아 그간의 종사 발전과 종친단합에 이바지해 오신 분 들의 노고를 함께 기리며 대동단결의 의지를 굳건히 했다. 또한 종친가족들 이 정성을 담은 헌성금 2086만원을 모 금한데 이어, 철헌 계성군파 도종친회 장(17대손)의 인사말을 끝으로 금년 도 계성군파 제주입도조 시향제 봉행 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

전주이씨 계성군파는 377년전인 1644년 계성군 4대손이신 팽형조께서 제주에 입도한 이래 도내 총친가족은 1 만9000여명 으로 전주이씨 3만여 제주 가족의 2/3를 차지하고 있다. 이날 철 헌 도종친회장은 본시향제를 성황리에 장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준 여성 회(동여 회장)와 청년회(영 회장) 회 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※ '오피니언'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#### 부 卫

**조용철(한라일보 부국장**) 어머니 진주강씨 낭숙 (향년 96세)께서 서기 2021년 10월 12일 12시 30분경에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.

▶일 포:2021년 10월 13일(수요일) ▶ 발인일시:2021년 10월 14일(목요일)

오전 7시

▶ 발인장소 : 하귀농협장례식장 101분향실

▶장 지:어음 가족선영

조용철 김난희 아 들 며느리 김익현 조순자 사 위 정희 강용겸 경희 임영식 영희 오선종 강형우 (故) **순**

※ 연락처 : 조용철 010-5699-5814

# 제주지방법원 판결공시

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011 (2020고단2478) 상해등

· 피고인 **이용주** 

위 피고인은 상해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478 상해의 점은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,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

💌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





010-2102-5424 / 010-6275-5200



더 이상 허리숙여 수확하지 마세요!